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입법지원 등 모색

반도체 특화단지 토론회

국회법제실·양향자 의원 공동 주최 "규제 해소·투자 촉진 법률안 추진"

민선 8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국회 입법지원 등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회 법제실과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광주서구출)이 공동으로 27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산업 및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인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7일 광주과학기술원 오희관에서 양향자 국회의원, 국회법제실 법제관과 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산업협회·광주시·전남도 관계자 등이 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토론회는 윤이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이 '에너지반도체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김형준 차세대기능형반도체사업단사업단장이 '국내외반도체 동향과 인공지능'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국회 법제실 법제관 및 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산업협회·광주시·전남도 관계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정책 방향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양향자 의원은 "광주·전남은 입지 환경, 풍부한 전력과 용수는 물론 인공지능

(AI) 집적단지·나주 혁신산단 등 연구개발 기반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에너지공단 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도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인구, 에너지 위기라는 대한민국의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이 있는 호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프라 구축, 규제 해소, 투자 촉진 방안을 반영해 법률안 제·개정 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화단지 지정에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량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만큼, 오늘 토론회가 시·도민에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반도체는 내일을 상징하는 핵심기술이고 먹거리"라며 "오늘, 호남평야가 한반도의 곡창

지대이듯 내일, 호남권반도체특화단지는 한반도의 신 곡창지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시장은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는 지역이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광주와 함께 모든 역량을 쏟아 미래 100년 먹거리인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실과 양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요건을 수렴해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8기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인 첨단 1·3지구 일대에 시스템 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지스트, 삼성전자와 협약... 반도체공학과 신설

2028년까지 150명 선발 장학생은 삼성전자 채용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이 삼성전자 주식회사(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반도체 공정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공학과를 설치한다.

27일 지스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래길 총장직무대행, 조정희 대학장, 전창덕 연구원장,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 박승희 사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형석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희관에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반도체 공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공학과 신설 및 운영 △반도체 공정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지원 △반도체공학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스트는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0명씩 총 150명을 반도체공학과 학석사통합과정 학생으로 선

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7학기의 학사과정과 3학기의 석사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이중 장학생으로 선발돼 삼성전자에 채용된 학생은 반도체 공정 전문 인력으로 양성된다.

이밖에도 이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과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도 각 학교에서 삼성전자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 체결을 진행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신설해 운영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성균관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스텍과 함께 3개 과학기술원(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까지 총 7개 학교다.

박래길 지스트 총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지역 균형 발전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스트의 우수한 교육·연구 자원과 삼성전자의 세계적인 기술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은 "반도체 공정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오세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D-5 프레스데이가 27일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최덕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총감독의 안내를 받으며 식물원 및 시크릿가든, 키즈가든, 개울길 광장 등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 주제로 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열린다.

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한데, 광주를 거점으로 우수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 간 계약학과가 생길 때마다 아쉬움이 컸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계약학과가 생겼고,

지역 인재 성장의 여망이 현실화 됐다"면서 "여러 교육기관과 협력하고,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 등 인재 양성 사다리를 완성하는 일에 멈춤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봄에 떠나는 그라운드를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HAVE MORE FUN!

Life Food, Domino's.

도미노피자에서 가맹점 대표님을 모집합니다.

지역: 영광/완도/영암삼호/장흥/강진/진도

02-6954-3059 | **02-6954-3020**
 khgoo@dominos.co.kr | syyoo@dominos.co.kr